

지역 경제 거점 육성 호남은 '뒷전'

국토해양부, 대구·구미 등 산단 개발 구체화 광양·여수·목포항 재개발은 타당성 조사만

국토해양부가 목포, 광양, 여수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광주·전남 공동산업단지를 내년에 착공한다는 내용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활성화 방안은 국가균형발전보다는 영남 등 특정 지역 개발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국가균형발전회의에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대구, 구미, 포항, 서천, 광주·전남 등 5곳의 국가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인허가 특별법'을 적용, 내년까지 모두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시 입지제한지역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입지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서남해안 8개 지역(진해, 통영 2곳, 남

해, 하동, 광양, 고흥, 신안)에 조선산업용지 9.62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국 10개의 노후 항만(부산북항, 인천, 군산, 대천, 목포, 제주, 광양, 여수, 포항, 목호)을 문화, 관광, 비즈니스 기능의 중심으로 재개발, 도시 재생 및 지역 경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부산 북항을 올해 1단계로 착공, 오는 2012년에 완료하고 3, 4 부두와 여객부두 등은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인천과 군산항은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규제 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장기적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긴요한 핵심 사업의 경우,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소재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 세제와 소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1년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은 물론 행정·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방비즈니스 기능의 중심으로 재개발, 도시 재생 및 지역 경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 방안은 영남 등 특정 지역 개발에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산업단지가 영남에 3개나 편중되어 있는데다 조선산업용지 보급도 영남 지역(5곳)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또 10개 노후 항만 재개발과 관련, 부산북항은 뚜렷한 개발 계획이 제시된 반면 광양, 여수, 목포항은 명확한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단지 타당성 조사만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

"혁신도시 기능 확충해 지속 추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사진)은 10일 "혁신도시는 통제되는 몇몇 대기업 이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의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 대해 설명한 뒤 "이번 계획과 관계 없이 혁신도시의 예측대로 추진되며, 혁신도시의 자족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사업임을 전제로 "행정구역 개편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지역



개편이 현실화되면 '5+2 광역경제권' 구성은 변경된다.

▲이 대통령이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정치권에서 장기적으로 논의되고 국민적인 합의도 얻어내야 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아마 구체적인 것이 결정되면 불가피하게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비전도 역시 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발전 정책에 대한 비전도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2 광역경제권" 계획으로 혁신도시 추진에 변화가 있다.

▲일부 대기업 이전을 제외하고는 혁신도시를 변형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혁신도시를 보다 자족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 정부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 합리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과의 연관성도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두루 자르듯 구분할 수 없다. 지난 1차 회의와 오는 2차 회의는 지방발전에 관한 로드맵이며 이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이와 연계해 추진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연남뉴스>

권역별 선도산업 1~2개 육성

지경부, 5조5천억 지원...호남엔 신재생에너지·광소재 산업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선도산업 선정, 이 산업의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 5조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지역 정책의 중점을 기존 '13개 사·도' 중심에서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는 10월까지 경제권별로 선도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경부는 신성장 선도산업 후보군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과 광주·전남을 선정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기 위해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분야를 지정했다.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의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특히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광소재 산업을 후보군으로 발표했다.

또 경북과 대구, 울산을 합친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 산업의 신성장지대'로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와 이동통신 산업을 후보군으로, 부산과 경남의 동남권은 '현대경양시대



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만들기 위해 수송기계와 융합부품·소재 산업을 후보군으로 각각 지정했다.

아울러 강원권은 의료, 관광 산업을, 제주권은 물 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중 지역 의견 수렴과 국가 신성장동력 선정을 완료하면 세

부 조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광역별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8천622억원, 내년 1조1039억원 등 2012년까지 모두 5조5천5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대 육성 매년 1천억 쓴다

교과부, 거점대학 선정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

영남·충청 집중...광주과기원 차별 논란

지방 대학의 인력양성을 위해 지방 거점대 육성사업,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에 내년 한해 모두 5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특히 광주과기원(호남권)과 대구 경북과기원(대경권)에 학사 과정을 설치하는 한편, 학과과학기술원(충청권), 울산과기대(동남권), 포항공과대(대경권) 등 우수 이공계 대학을 선도산업과 연계된 첨단 융합·실용 학문의 교육·연구 인력양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와 기술부는 10일 이명박 대

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 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우선 지식경제부가 지정하게 될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별로 1~2곳씩 총 2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키로 했다. 거점 대학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양성 성과, 향후 계획, 육성의 지 등을 평가해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0억원씩 매년 1천억원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또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누리사업(지방대 혁신사업)과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 3천300억원을 지방대 및 전문대학에 지원키로 했다. 단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액 다건'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률 등의 측정 지표를 적용해 교육 성과가 탁월한 소수의 대학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기대, 포항공과대 등 영남·충청권 이공계 대학에는 집중 지원 방침을 가진 반면, 광주과기원에는 이미 결정된 학사 과정 설치 외에 특별한 지원 계획이 없어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간 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빛고시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한빛고시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개강 > 10월 1일

공무원합격압도적 1위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교육행정/농업직/기술직/사회복지/출판직

='09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 이루세요 =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 강좌 지방직

강좌직종: 행정·세관·법검·철교·보보·복군·소기·전·정·행·무·세·원·찰·공·정·호·전·지·무·방·술·산

09년 공무원 시험안내 **개강 9월 16일(주·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 전국: 9급 국가직 4월 중순, 7·9급 지방직 9월 하순 7급 국가직 7, 9월 시험 시행 ※내내부터 공시·연방상행, 양한다(회원 기장은 유자)

※수강료가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 「無等」은 "꼭" 합격 받으실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

www.mdgosi.co.kr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두 (중앙초교 우문앞) ☎ 222-456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월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농산물품질관리사**

우리농산물 지킴이

개강일 9월 6일 - 주말반 -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인 5회시험</p> <p>-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p> <p>-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p> <p>▶ 시험: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강료 국가 지원</p> <p>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p> <p>49명 선착순 조기 마감 유의</p>
---	--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수석합격자 배출 (한태환48세·최영아31세)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p>10월 26일 시험대비 시뮬레이션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p>	<p>9월 16일 ~ 10월 5일 죽집계단기특강</p> <p>10월 6일 ~ 10월 18일 최종문제풀이특강 현재접수중</p>	<p>2009년도 시험대비반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p> <p>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p>
---	---	---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화랑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